

매체 속 의사

최종욱 광주 우치동물원



나 역시 의사란 직업에 아주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진 않지만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의사들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때가 많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 한편도 여주인공이 의사인데 그 직업은 여배우의 신비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악세사리 이외에는 그야말로 아무 것도 아니었다. 굳이 동물 알레르기를 가진 배우를 의사란 직업에 짜 맞추는 감독의 의도가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의사가 동물원 원장만 하란 법도 없는 데 왜 맨날 동물병원 원장뿐인가? 황우석도 모르나.

의사는 모름지기 동물들을 살리는 신성한 직업이다. 그래서 그 직업 자체로도 얼마든지 휴먼 드라마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영국의 의사 '제임스헤리엇'은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 작가이며, 그의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 졌다. 그의 책의 내용은 그야말로 꽤 꽤먹은 진료를 하는 옛날 의사의 일상을 그렸지만 그것도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영화나 TV속 의사는 말끔한 가운만 걸치고-실제 의사는 작업복을 입을 때가 더 많다- 연예나 즐기는 그런 시덥잖은 사람들이어야 하느냐는 거다. 가끔 바쁜 척해도 겨우 주사기 들고 폼 한번 재는 그런 불량한 의사들만 나올 뿐이다. 동물들과 치료는 그곳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의사가 직업으로 나오는 우리나라 드라마는 코미디나 멜로물 정도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 없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다. 외국영화를 몇 편 보면 역시 그곳에서 그려지는 의사들도 우리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덜 하지는 않다. '은행털이 아빠와 나', '레옹'에서는 주인공이 총을 맞아 찾아가는 곳이 폐인 같은 의사가 있는 낡은 동물병원이다. 그리고 뼈다귀를 물고 수술을 받는다. '앵클 톱'이란 아메리카 노예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의사는 의사대신 노예들의 건강 진단을 맞는다. 노예들을 동물취급 했다는 암시적임 표현에 의사가 동원된 것이다. '닥터 두리틀'에서 동물 말 알아듣고 치료하는 주인공은 의사가 아닌 의사이다. 폼 나는 일은 동물영화에서도 의사가 다한다. 의사는 그저 웃긴 일, 더러운 일, 범죄에 연루된 일 등

에 엑스트라 급 정도로 잠깐 등장하면 다행이다. 외국의 수의학 교육은 최장 8년제로 의과대학 졸업한 사람이 지원할 정도인데도 이 모양이다.

그런데 왜 수의사는 이런 억울한 취급을 받을까?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하면 수의사가 참 멋진 직업이고 매력 있다고들 말한다. 나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말과 사뭇 다르다. 우리 동물원에 찾아오는 실습생 대부분도 사육사가 되기를 원한다. 사육사가 외국처럼 전문성을 갖춘 멋진 사람이 아닌데도 말이다. 그러면 왜 수의사는 원하지 않는 지 물어 본다. 대답은 “수의사는 죽은 동물들 보아야 하잖아요. 끔찍해요” 정도다. 그럼 사육사는 죽은 동물들 안보나, 마찬가지로 인데도 그리고 실지로 동물원을 이끄는 주체가 수의사인데도 인식이 이 정도뿐이다. 수의사가 사람을 응급처치 했다면, 나중에 고맙다는 대신 동물취급 받았다고 불쾌해 하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의사들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고발까지 해댄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많은 수의사나 수의학과 학생들이 의무병이나 의무병과를 책임지고 있다. 혹시 이것도 또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려나?

결론적으로 이 모든 무시의 근간에는 인간본의 사상이 짙게 깔려있다. 여전히 동물을 다루는 일은 옛날 백정시대마냥 천한 직업으로 삼는 마음이 반영된 현실일 뿐이다.

그리고 수의사들도 이점 어느 정도는 체념한다. 그러나 그런 걸 알면서도 그 직업을 감내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인간이 생태계의 일원임을 자각 시켜 주는 원초적인 직업이어서 그렇고, 개인으로는 동물을 돌보라는 운명 같은 것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비록 모욕을 당해도 다른 길을 생각조차 할 수 없으니까.   

